

후기아동의 속담이해능력과 사용정도에 관한 연구 : 속담의 친숙도와 구체성을 중심으로*

Proverb Comprehension and Use in Late Childhood :
The Role of Familiarity and Concreteness of Proverbs*

조복희(Bokhee Cho)¹⁾

이주연(Joo-Yeon Lee)²⁾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proverb comprehension and use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by familiarity and concreteness of proverbs and children's age, sex, experience of living with grandparents. The 529 fourth and sixth grade participa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probing knowledge of 16 proverbs; 4 each in four categories (familiar-concrete, familiar-abstract, unfamiliar-concrete, and unfamiliar-abstract). Results showed highest comprehension scores for familiar-concrete proverbs. Sixth graders obtained higher comprehension score than fourth graders in all four proverb categorie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grades in frequency of proverb usage.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grade and sex showed that female sixth graders had the highest comprehension score. These results suggest a possibility of relationship between figurative language and cognitive development related to abstract thinking in late school-age children.

Key Words : 속담(proverb), 비유언어(figurative language), 친숙도(familiarity), 구체성과 추상성(concrete vs. abstract), 아동기 후기(late childhood).

I. 서 론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는 창의적이고 논리적

이며 분석적인 인간의 인지능력이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그러한 이유로 21세기를 이끌어 갈 아동의 발달에 있어 인지능력의 향상과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5-041-C00494).

¹⁾ 경희대학교 아동가족전공 교수

²⁾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Joo-Yeon Lee, Dep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00 Yongbong-dong Buk-gu, Gwangju 500-757, Korea
E-mail : idscot@chonnam.ac.kr

개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동의 인지 발달은 연령과 밀접한 상관을 보이는데, Piaget (1959)는 아동의 인지발달을 설명함에 있어 12세에 해당하는 후기 아동기부터 추상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형식적 조작사고가 발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후기 아동기에는 이전과 달리 점차적으로 추상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고 더불어 활용도도 많아진다고 설명한다. 이는 역으로, 이 시기의 아동이 추상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사용하는가를 바탕으로 그들의 인지능력을 추론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비유적 언어에 대한 이해능력과 사용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동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느 연령대의 아동이 어떤 특성의 비유적 언어를 이해하는지, 그리고 비유적 언어에 대한 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아동의 인지발달을 이해하고 이를 개발하는 데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기 후기에 급격한 발달을 보이는 비유언어(figurative language)로 속담, 속어, 격언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속담은 대표적인 비유언어로, 구체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글자 그대로의 지시적 의미와 함께 비유적 의미를 갖는다(오소정, 2001). 외국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속담의 이해능력은 인지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Nippold, 1998; Nippold, Uhden, & Schwarz, 1997). 특히 속담의 사용은 아동의 표현능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Mieder & Holmes, 2000), 아동의 속담이해능력과 사용정도에 대한 조사는 그들의 인지발달 수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Nippold, 1988,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어문학분야에서 속담의

표현과 의미, 구조 등을 분석하거나 외국속담과 비교한 연구들(김충효, 1983; 박갑수, 2001; 유재복, 2001; 조재윤, 1988; 정달영, 1998, 2000; 진경지, 2002), 혹은 속담에 나타난 문화적 가치관을 분석한 연구들(김명희, 1989; 이하배, 2001; 조복희·안선희·이영환·이진숙, 1998; 조복희·이진숙, 2000)이 속담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아동의 속담이해능력에 관한 연구는 극소수(서정수, 1982; 오소정, 2001; 조복희·이주연·강기숙, 2007)에 불과하다. 반면, 외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비유적 언어표현과 인지 발달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속담이해능력과 인지발달수준 간에 상관이 있다는 매우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Nippold, 1998). 더욱이 그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속담을 이용하여 언어 및 학습장애와 같은 인지적 장애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Gorham, 1956; Gorham's Proverb Test). 더욱이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적용하여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속담교육 프로그램과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Ezell, 1998; Mieder & Holmes, 2000).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기 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속담이해능력과 사용정도의 경향을 알아보고 속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함으로써, 아동의 인지적 발달 측면에서 속담연구를 접근하고자 한다.

아동의 속담이해능력과 관련된 변인은 크게 속담의 특성과 아동의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속담의 특성으로 외국 선행연구들은 속담의 친숙도(familiarity)와 구체성(concreteness)의 두 가지 특성이 속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Nippold, Allen, & Kirsch, 2000;

Nippold, et al., 1997; Nippold & Haq, 1996;). Nippold와 Haq(1996)는 문장 안에 포함된 속담의 뜻을 맞추는 필기검사도구를 고안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의 속담이해능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아동과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대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친숙한 속담을 낯선 속담보다 더 쉽게 이해하였다. 이처럼 속담의 친숙도가 속담이해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개개인에게 의미가 있거나 경험적으로 친숙한 문장에 노출될 때 언어이해능력이 발달하게 된다는 언어경험가설(language experience hypothesis)과 관련이 있다(오소정, 2001).

속담의 구체성도 속담이해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되는데, 속담의 구체성은 속담이 포함하고 있는 명사의 종류로 결정된다(Nippold, et al., 2000). 즉, 속담에 포함된 명사가 구체명사인 경우를 구체적(concrete) 속담으로, 추상명사인 경우를 추상적(abstract) 속담으로 분류하는데, 예를 들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에서 ‘도끼’, ‘발등’은 모두 구체명사이기 때문에 구체적 속담으로 분류하는데 비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에서 ‘말’은 추상명사이므로 추상적 속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 속담과 추상적 속담으로 분류할 경우, 아동과 청소년들은 대개 구체명사만을 포함한 속담을 추상명사만 포함한 속담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한다(Nippold & Haq, 1996; Nippold, et al., 2000). 속담에 포함된 낱말의 특성에 따라 해당 속담을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초언어의미론적 가설(metasemantic hypothesis)을 지지한다(Nippold & Haq, 1996). 초언어의미론적 가설이란 인간이 추상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문장에 포함된 단어를 적극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말한다. 초언어의미론적 가설에서는, 속담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포함된

단어의 의미를 분석할 때 추상명사보다는 구체명사가 속담문장의 비유적 표현을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며(Power, Tayler, & Nippold, 2001), 이러한 견해는 비유적 표현을 전체로써의 사전적 단위로 학습한다는 전통적 견해와 상반된다(Gibbs, 1991). 실제로 한 경험적 연구에서 Nippold와 Allen, 그리고 Kirsch(2000)는 12, 15, 18세 학생들의 어휘력과 속담이해능력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명사에 대한 지식은 친숙하지 않은 속담의 이해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고, 이는 명사의 종류가 속담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속담이해능력과 관련이 있는 아동의 특성으로는 첫째, 연령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비유적 언어에 대한 이해는 아동의 인지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아동의 연령은 속담이해능력에 핵심적인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속담이해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12세 이전의 아동 대부분이 속담을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으나(Billow, 1975; Piaget, 1959; Richardson & Church, 1959),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만 10세정도가 되면 비유언어의 이해능력은 뚜렷하게 발달하며(서정수, 1982; Abrahamsen & Sprouse, 1995), 아동기 후반에서 청소년기로의 전이기(10세에서 14세 사이)에 급격하게 성장한다고 보고한다(Nippold, 1998). 실제로 학령기 이후의 아동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상생활에서 비유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며, 동시에 학교교육에서도 비유언어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한다(Lazar, Warr-Leeper, Nicholson, & Johnson, 1989). 속담이해능력이 인지·언어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유아가 아닌 아동기 후기부터 성인기 사이에 발달하는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비유언

어에 대한 지식과 이해능력의 증가는 아동기 이후 연령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분석적 추론력의 증가와 관련된다(Nippold, Martin, & Erskine, 1988). 즉, 아동기 후기의 아동들은 어떤 자극에 대해 그 유사성과 차이성을 인식하여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분석적 추론력(analogical reasoning)을 발달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추론능력을 바탕으로 속담내용의 전후맥락과 속담에 사용된 단어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비유언어의 추상적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둘째, 연령에 따른 속담지식의 증가는 언어발달에 대한 초언어의미론적 가설과도 일맥상통한다(Nippold & Haq, 1996). 전술한 바와 같이 초언어의미론적 가설에 따르면, 인간은 비유적인 내용의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그 안에 포함된 단어들을 분석하게 되는데 이러한 능력은 영유아가 아닌 아동기의 초인지(metacognition) 발달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다(Pinto, 1999). 셋째, 속담은 일상대화 뿐 아니라 책이나 TV 프로그램, 공연물 등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다양한 언어 표현 상황에 노출될 기회가 많을수록 속담을 접하게 될 기회 또한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속담은 지극히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속담에 포함된 단어 자체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지식과 상황에 대한 이해능력 및 민감성 등을 필요로 한다(오소정, 2001). 따라서 영유아나 어린 아동보다는 나이든 아동이, 그리고 청소년과 성인이 속담에 접하는 기회가 더 많을 뿐 아니라 각자가 처해있는 사회와 문화, 상황에 대한 이해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속담의 비유적 표현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아동의 속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번째 아동의 요인으로 성별을 들 수 있다. 일

반적으로 아동발달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언어발달에서의 성차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Ruble & Martin, 1998). 비록 언어능력에서의 성차가 약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나(Feingold, 1988), 대부분의 연구들은 언어발달에서 여아의 우수성을 일관되게 보고한다(Hedges & Nowell, 1995; Hyde & Linn, 1986; Rosenthal & Rubin, 1982). Hedges와 Nowell의 연구(1995)에 의하면 여아의 언어능력은 읽기이해와 지각속도, 보조기억, 그리고 쓰기의 영역에서 모두 남아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고한다. 또한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서 남아와 여아 간의 성차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Hyed와 Linn(1986)의 연구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언어능력이 뛰어나다는 결과를 보고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비유언어에 대한 이해능력에서도 남아보다는 여아가 앞서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연령 및 성별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과 더불어 아동의 환경적 경험은 개별 아동의 속담이해 능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아동기 이후 속담이해능력의 증가율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특히 아동기 후기의 속담이해능력점수는 개인 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Nippold, et al., 2000; Nippold & Haq, 1996). 이러한 결과는 이 시기 아동들의 일상생활 속 속담환경이 그들의 속담지식과 이해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속담이해능력에 대한 환경적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속담은 일상체험에서 얻은 생활의 지혜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용적 표현으로 정의된다(조재운, 1988). 뿐만 아니라 속담은 한 사회의 공유된 가치와 신념, 전통적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의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지식을 반영한다(김종택, 1994; Billow,

1975). 따라서 아동의 일상생활 중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성인들과의 대화 경험이 많을수록 속담을 접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인차를 야기할 수 있는 속담환경으로서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속담이해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부모의 역할에 대한 손자녀의 인식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손자녀들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의미와 가족역사를 제공하는 역사가의 역할, 생활의 기초를 가르치고 지혜를 전수하는 훈육자의 역할을 가장 대표적인 조부모의 역할로 인식한다(서동인, 1996a, 1996b; 이미숙·조병은·강란혜, 2004; Kornhaber & Woodward, 1981). 한편,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는 그들 간의 동거여부와 접촉빈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김연수, 1993; 김현주, 2006). 이런 점에서,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생활의 지혜인 속담에 대한 노출정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발달의 측면에서 수행된 속담연구의 거의 전부는 외국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외국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속담이해능력을 추론할 수도 있겠으나 속담의 문화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국내에서도 속담이해능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속담은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특정 문화와 사회의 역사, 전통, 풍습, 가치관, 신념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속담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발달과 관련된 인지적 보편성에만 근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비유적 언어이해능력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후기 아동들의 속담이해능력을 조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속담이해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는 속담의 친숙도와 구체성에 따라 속담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속담이해능력에서의 차이를 비교할 것이다. 또한 속담유형별로 아동의 연령(학년), 성별,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속담이해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아동의 연령은 선행연구들에서 속담이해능력의 영향요인으로 일관되게 보고되므로, 그 영향력을 감안하여 다른 변인들(성별 및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을 분석함에 있어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속담이해능력과 사용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속담이해능력은 아동의 학년 및 속담의 친숙도와 구체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1. 학년에 따라 속담이해능력과 사용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2-2. 속담의 친숙도와 구체성에 따라 속담이해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속담이해능력은 학년, 성별, 조부모와의 동거 등 아동 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3-1. 속담이해능력에 대한 학년과 성별의 효과는 어떠한가?

3-2. 속담이해능력에 대한 학년과 조부모 동거여부의 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시와 전주시 소재의 6개 초등학교로부터 표집한 4학년과 6학년 아동 529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4학년과 6학년의 두 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실제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4, 6학년 언어교과과정에서 속담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529명의 아동 중 333명(62.9%)의 아동이 서울소재 초등학교로부터 표집되었으며, 나머지 196명(37.1%)은 전주시에 표집되었다. 대상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529명의 아동 중 4학년이 205명으로 약 39%였으며, 6학년이 324명으로 61%를 차지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가 279명(53%), 여아가 241명(46%)이었다.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동거경험이 전혀 없는 아동이 357명으로 전체 약 68%를 차지하였고, 172명(약 33%)의 아동은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밖에 주요 분석변인은 아니었으나 형제수의 경우, 65%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아동이 1명의 형제가 있었고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의 44%, 어머니의 51%가 고졸이하인 것을 알 수 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속담이해능력은 아동이 속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다양한 속담의 뜻을 묻는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속담에 대한 아동의 친숙도와 속담내용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속담유형을 구분하였다. 즉, 친숙도와 구체성의 요인을 두 가지 독립요인으로 하여 i) 아동에게 친숙한 구체적 속담, ii) 아동에게 친숙한 추상적 속담, iii) 친숙하지 않은 구체적 속담, 그리고 iv) 친숙하지 않은 추상적 속담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속담의 친숙도는 초등학교생의 속담지식에 관한 선행연구(조복희 외, 2007)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분류하였으며, 구체성은 Nippold 등(2000)의 기준을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먼저, 속담의 친숙도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속담과 초등학교생용 속담사전에 수록된 속담, 그리고 조복희 등(2007)의 연구에서 초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 인	구 분	빈도(백분율)	변 인	구 분	빈도(백분율)
학 년	4학년	205 (38.8)	조부모와의 동거여부	비동거	357 (67.5)
	6학년	324 (61.2)		동 거	172 (32.5)
	합 계	529 (100.0)		합 계	529 (100.0)
성 별	남 아	279 (52.7)	형제수	0명	38 (7.2)
	여 아	241 (45.6)		1명	344 (65.0)
	무응답	9 (1.7)		2명	123 (23.3)
	합 계	529 (100.0)		3명 이상	24 (4.6)
아버지의 학력	고졸이하	231 (43.7)	어머니의 학력	합 계	529 (100.0)
	대 졸	158 (29.9)		고졸이하	270 (51.1)
	대학원졸	40 (7.6)		대 졸	123 (23.3)
	무응답	100 (18.9)		대학원졸	27 (5.1)
	합 계	529 (100.0)		무응답	109 (20.6)
			합 계	529 (100.0)	

등학생들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상위 30위 이내의 속담들 중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40개의 속담을 추출하여 4명의 초등학교 4, 5, 또는 6학년 아동에게 속담의 친숙도 여부를 물었다. 4명 모두 혹은 3명의 아동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속담들(친숙한 속담) 중 14개와 3명 이상의 아동이 모른다고 응답한 속담(친숙하지 않은 속담) 중 14개를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28개의 속담을 가지고 다시 구체성과 추상성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다. 각 속담이 포함하고 있는 명사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 명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는 구체적 속담으로, 추상명사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추상적 속담으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작은 고추가 맵다’는 친숙한 구체적 속담으로,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는 친숙한 추상적 속담으로, ‘옷이 날개다’는 친숙하지 않은 구체적 속담으로, 그리고 ‘꿈보다 해몽’은 친숙하지 않은 추상적 속담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4가지의 속담유형별로 각각 4개씩 총 16개의 속담을 선정하였다 (각 속담은 <표 2> 참조).

이들 총 16개의 속담에 대해 이해능력 측정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정답 선택지는 속담사전(김명호, 2004)을 참조하였고 오답 선택지는 연구자가 제작한 후, 최종적으로 아동학 전공 교수 5인과 대학원 학생 2인에 의해 검토되었다. 선정된 속담에 대해 각각 정답 1개와 오답 1개로 구성된 선택형의 응답항목 중 맞는 뜻을 고르게 하였다. 예를 들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에 대한 이해능력은 a) 고래들이 싸우면 새우처럼 등이 구부러지고 터진다, b) 강자끼리 싸우면 약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두 가지 선택지 중 속담이 의미하는 뜻을 선택하도

록 하였다. 이 때, 정답을 고르면 1점, 오답은 -1점, 뜻을 몰라 응답하지 않으면 0점을 주도록 측정하였고, 이후 통계분석에 사용된 속담 이해능력 점수는 정답 점수(1점)들만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한편, 속담사용정도는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1점)’,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2점)’, ‘가끔 사용한다(3점)’, ‘자주 사용한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아동의 학년, 성별, 부모의 학력, 연령,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대상 아동들의 속담이해능력을 조사하기에 앞서, 속담의 친숙도와 구체성을 기준으로 본조사에 사용할 속담 16개를 선정하는 예비조사과정을 거쳤다. 본조사는 2006년 6월에서 7월 사이 서울시와 전주시의 초등학교 각각 3곳에서 수행하였다. 각 학교의 4학년과 6학년 담임교사를 통해 총 600부의 설문지를 해당 학년 아동들에게 배부하였다. 이 중 561부가 회수되었고 무응답이 30%가 넘는 설문지와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한 총 52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비록 본 연구의 대상 아동들은 서울시와 전주시의 두 지역에서 표집되었으나 분석에서는 이들 지역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자료의 초기 분석단계에서 지역적 차이는 물론 두 지역별로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의 차이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 본분석에서는 두 지역의 자료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설문지를 통해 얻은 자료들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속담이해능력과 사용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학년에 따른 속담이해능력의 차이는 *t*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속담의 친숙도와 구체성에 따른 속담이해능력에서의 차이검정은 반복측정설계(repeated measurements design)에 의한 변량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특성(학년, 성별, 조부모 동거여부)에 따라 속담이해능력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다변량분산분석(Two-way MANOVA)을 실시하였다. 4가지 속담유형별 점수의 선형조합에 대한 학년, 성별, 조부모 동거여부의 주효과와 학년*성별 및 학년*조부모 동거여부의 상호

작용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속담유형별 단변량분산분석도 함께 수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전반적인 속담이해능력과 사용정도

연구대상 아동들의 전반적인 속담이해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 16개의 속담에 대해 그 뜻과 일상생활에서의 사용정도를 질문하였다. <표 2>에 의하면 16개의 속담을 속담의 친숙도와 구체성에 따라 나누었을 때, 친숙한 속담의 경우 응답 아동의 84%에서 97%가 각 속담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었던 반면, 친숙하지 않은 속담의 정답비율은 43%에서 85%로 속담에 따라 큰 차이

<표 2> 각 속담별 이해능력과 사용정도

속담	속담이해능력			속담 사용정도 (M)	
	정답 (%)	오답 (%)	무응답 (%)		
친숙한 구체적 속담	누워 떡 먹기	91.5	8.5	0.0	2.73
	작은 고추가 더 맵다	91.5	7.6	0.9	2.57
	팽 먹고 알 먹는다	85.1	14.6	0.4	1.91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83.6	16.1	0.4	1.82
친숙한 추상적 속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96.4	3.4	0.2	2.75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94.3	5.7	0.0	2.56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86.4	12.9	0.8	2.21
	고생 끝에 낙이 온다	92.8	7.0	0.2	1.71
친숙하지 않은 구체적 속담	달걀로 바위치기	58.4	41.2	0.4	1.91
	사촌이 눈물 사면 배가 아프다	84.9	15.1	0.0	1.71
	웃이 날개다	71.6	27.6	0.8	1.68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	70.9	28.9	0.2	1.59
친숙하지 않은 추상적 속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69.8	28.9	1.3	1.84
	무소식이 희소식	70.3	29.5	0.2	1.74
	가던 날이 장날이다	42.9	56.5	0.6	1.63
	꿈보다 해몽이 좋다	68.6	30.4	0.9	1.45

를 보였다. 친숙한 구체적 속담 중 ‘누워 떡먹기’와 ‘작은 고추가 더 맵다’ 등은 약 92% 아동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친숙한 추상적 속담 중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96%가,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94%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93%가 그 뜻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숙하지 않은 구체적 속담 중, ‘달갈로 바위치기’는 58%, 친숙하지 않은 추상적 속담 중 ‘가던 날이 장날이다’는 43%에 해당하는 아동만이 각 속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러한 속담들을 실제로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3(가끔 사용한다)이하의 점수를 보여 아동들이 실제 생활에서 속담을 활용하는 정도는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친숙한 속담들의 사용정도점수는 1.71-2.73의 점수분포를 보인 반면, 친숙하지 않은 속담들은 1.45-1.91로 2점(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하를 보여 상대적으로 더 낮은 활용도를 나타냈다.

〈표 3〉 학년에 따른 속담 이해능력과 사용정도

속담유형		구 분	N	M (SD)	t
속담 이해능력	전체 속담	4학년	205	12.07 (2.33)	-4.26***
		6학년	324	12.92 (2.15)	
	친숙한 구체적 속담	4학년	205	3.42 (.84)	-2.25*
		6학년	324	3.58 (.69)	
	친숙한 추상적 속담	4학년	205	3.62 (.69)	-2.15*
		6학년	324	3.75 (.55)	
	친숙하지 않은 구체적 속담	4학년	205	2.63 (1.08)	-3.94***
		6학년	324	3.00 (1.06)	
	친숙하지 않은 추상적 속담	4학년	205	2.40 (.99)	-2.11*
		6학년	324	2.59 (1.01)	
속담 사용정도	전체 속담	4학년	165	1.98 (.57)	.28
		6학년	298	1.96 (.55)	
	친숙한 구체적 속담	4학년	191	2.30 (.74)	1.22
		6학년	310	2.23 (.69)	
	친숙한 추상적 속담	4학년	190	2.31 (.76)	.26
		6학년	319	2.29 (.79)	
	친숙하지 않은 구체적 속담	4학년	187	1.74 (.62)	1.03
		6학년	314	1.68 (.60)	
	친숙하지 않은 추상적 속담	4학년	200	1.64 (.64)	-.49
		6학년	317	1.67 (.64)	

* $p < .05$ *** $p < .001$

2. 학년 및 속담의 특성에 따른 속담이해능력의 차이

1) 학년에 따른 속담이해능력

연구대상 아동의 학년에 따라 속담이해능력에서의 차이와 사용정도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속담의 뜻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측정한 속담이해능력 점수의 경우, 총 16개의 속담 전체 점수(16점 만점)뿐 아니라 4가지의 속담 유형별 점수(4점 만점)에서 4학년과 6학년 아동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전체 속담($t=-4.26, p<.001$), 친숙한 구체적 속담($t=-2.25, p<.05$), 친숙한 추상적 속담($t=-2.15, p<.05$), 친숙하지 않은 구체적 속담($t=-3.94, p<.001$), 친숙하지 않은 추상적 속담($t=-2.11, p<.05$) 모두 4학년 아동들에 비해 6학년 아동의 속담이해능력 점수가 높았다. 한편, 속담의 사용정도 점수에서는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속담의 친숙도와 구체성에 따른 속담이해능력

속담이 갖는 특성에 따라 속담을 이해하는 데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속담의 친숙도와 구체성에 따라 속담이해능력에서의 차이를 이요인 반복측정 변량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표 3>의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학년에 따른 개체 간 효과를 함께 검정하였다. 친숙도*구체성*학년의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치는 <표 3> 참조). 먼저 반복 측정설계를 위한 기본가정을 검토하였는데 유형별 속담이해능력 점수의 변량-공변량 행렬의 동질성이 만족되지 않았다($\text{Box's } M=25.02, F=2.48, p<.01$). 따라서 결과해석 기준으로 Wilks의 λ 값

<표 4> 학년 및 속담의 친숙도와 구체성에 따른 속담이해능력의 반복측정 변량분석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친숙도	440.50	1	440.50	698.91***
구체성	2.26	1	2.26	3.65 [†]
학년	22.33	1	22.33	18.12***
친숙도*학년	2.52	1	2.52	3.99*
구체성*학년	1.51	1	1.51	2.44
친숙도*구체성	32.50	1	32.50	54.75***
친숙도*구체성*학년	.70	1	.70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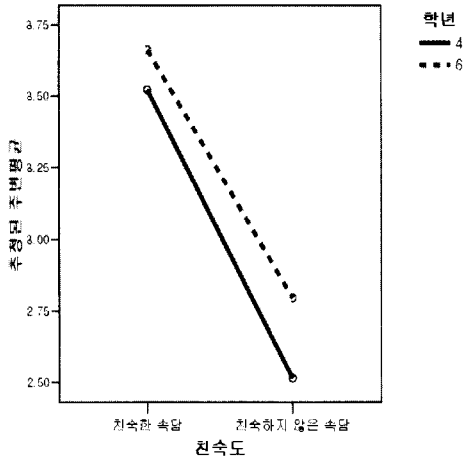
+ $p<.10$ * $p<.05$ *** $p<.001$

대신 Pillai의 T값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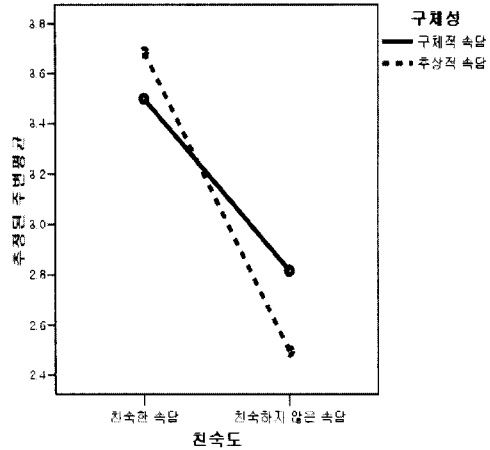
<표 4>에 의하면, 속담의 친숙도(Pillai $T=.570, F=698.91, p<.001$)와 구체성(Pillai $T=.007, F=3.65, p<.10$), 학년(Pillai $T=.57, F=698.91, p<.001$)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효과가 나타났다. 즉, 연구대상 아동들은 친숙한 속담일수록, 구체적인 속담일수록, 그리고 학년이 높을수록 속담이해능력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주효과와 더불어 친숙도*학년의 상호작용 효과(Pillai $T=.008, F=3.99, p<.05$)와 친숙도*구체성의 상호작용 효과(Pillai $T=.094, F=54.75,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그림 1, 2 참조). 친숙하지 않은 속담의 경우 6학년에 비해 4학년 아동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친숙하지 않은 추상적 속담일 때 속담이해능력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2>는 속담의 특성 중 구체성/추상성 보다는 친숙도의 여부가 아동의 속담이해능력에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3. 아동의 특성에 따른 속담이해능력의 차이

1) 속담이해능력에 대한 학년과 성별의 효과
속담이해능력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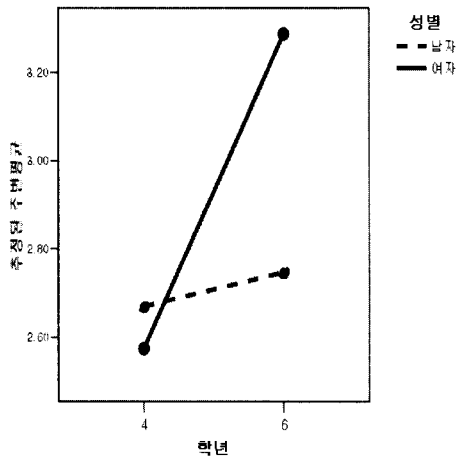


〈그림 1〉 친숙도*학년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2〉 친숙도*구체성의 상호작용 효과

아동의 특성 중, 앞에서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검증된 학년변인과 더불어 아동의 성별 및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속담이해능력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속담의 친숙도와 구체성에 따라 분류한 4가지 유형의 속담이해능력 점수에서 아동의 학년과 성별에 대한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가정을 검토한 결과, 유형별 속담이해능력 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90 이상의 다중공선성은 발견되지 않았다(Bartlett sphericity test $\chi^2=344.19, p<.001$). 그러나 기본가정 시 변량-공변량 행렬의 동질성을 만족하지 않아(Box's $M=109.36, F=3.59, p<.001$) 결과 해석 기준으로 Wilks의 λ 값 대신 Pillai의 T 값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행된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4가지 유형의 속담이해능력 점수의 선형조합에서 학년(Pillai $T=.04, F=5.57, p<.001$)과 성별(Pillai $T=.02, F=2.94, p<.05$) 각각의 주효과는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한 학년*성별의 상호작용효과(Pillai $T=.03/Wilks' \lambda=.98, F=3.25,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친숙하지 않은 구체적 속담 이해능력에서의 학년*성별 상호작용 효과

<표 5>는 각 속담유형별 단변량분산분석의 결과표이다. <표 5>에 의하면, 성별의 경우 ‘친숙한 구체적 속담’을 제외한 3가지 유형의 속담이해능력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효과가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이해능력점수를 보였다. 특히 ‘친숙하지 않은 구체적 속담’의 이해능력 점수에서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는데($F=11.25, p<.01$), <그림 3>에 의하면 남아는 학년에 따라 거의 차이를

〈표 5〉 숙담유형별 이해능력에서의 학년과 성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숙담유형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친숙한 구체적 숙담	학년	3.70	1	3.70	6.62**
	성별	.38	1	.38	.67
	학년*성별	1.06	1	1.06	1.90
친숙한 추상적 숙담	학년	2.08	1	2.08	5.64*
	성별	2.19	1	2.19	5.92*
	학년*성별	.00	1	.00	.00
친숙하지 않은 구체적 숙담	학년	19.14	1	19.14	17.41***
	성별	6.05	1	6.05	5.50*
	학년*성별	12.37	1	12.37	11.25**
친숙하지 않은 추상적 숙담	학년	4.90	1	4.90	4.93*
	성별	4.28	1	4.28	4.30*
	학년*성별	.74	1	.74	.75

* $p < .05$ ** $p < .01$ *** $p < .001$

보이지 않은 반면 여아는 4학년에 비해 6학년의 이해능력 점수가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서 4가지 유형의 숙담이해능력 점수의 선형조합에서 나타난 학년*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6학년 여아의 숙담이해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2) 숙담이해능력에 대한 학년과 조부모 동거여부의 효과

4가지 숙담유형의 이해능력점수에서 아동의 학년과 조부모 동거여부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도 변량-공변량 행렬의 동질성을 만족하지 않아(Box's $M=53.99$, $F=1.77$, $p < .01$) 결과해석 시 Pillai T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4가지 숙담유형 이해능력점수의 선형조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학년(Pillai $T=.03$ /Wilks' $\lambda=.99$, $F=3.56$, $p < .01$)변인의 주효과가 발견되었으나, 조부모 동거여부의 주효과(Pillai $T=.01$, $F=.91$, $p=.46$)와 학년*조부모의 상호작용효과(Pillai $T=.01$, $F=1.60$, $p=.17$)는 통계

〈표 6〉 성별에 따른 숙담이해능력 평균
(남아=279 여아=241)

숙담유형	성별	평균	표준편차
친숙한 구체적 숙담	남아	3.48	.79
	여아	3.56	.71
친숙한 추상적 숙담	남아	3.64	.69
	여아	3.77	.50
친숙하지 않은 구체적 숙담	남아	2.72	1.11
	여아	3.01	1.02
친숙하지 않은 추상적 숙담	남아	2.42	1.00
	여아	2.63	1.00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숙담유형별로 단변량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친숙하지 않은 구체적 숙담' 이해능력 점수의 경우 학년의 주효과($F=9.01$, $p < .01$) 뿐 아니라 학년*조부모 동거여부의 상호작용효과($F=5.31$, $p < .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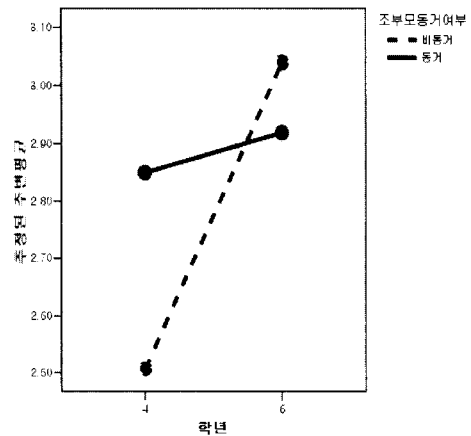
〈표 7〉 숙달유형별 이해능력에서의 학년과 조부모동거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숙달유형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
친숙한 구체적 숙달	학년	2.98	1	2.98	5.30*
	조부모 동거	1.46	1	1.46	2.60
	학년*조부모	.00	1	.00	.00
친숙한 추상적 숙달	학년	1.78	1	1.78	4.81*
	조부모 동거	.60	1	.60	1.61
	학년*조부모	.00	1	.00	.00
친숙하지 않은 구체적 숙달	학년	10.13	1	10.13	9.01**
	조부모 동거	1.36	1	1.36	1.21
	학년*조부모	5.97	1	5.97	5.31*
친숙하지 않은 추상적 숙달	학년	4.45	1	4.45	4.41*
	조부모 동거	.68	1	.68	.67
	학년*조부모	.04	1	.04	.04

* $p < .05$ ** $p < .01$

〈표 8〉 동거여부에 따른 숙달이해능력 평균 (비동거=357 동거=172)

숙달유형	성 별	평균	표준편차
친숙한 구체적 숙달	비동거	3.48	.75
	동 거	3.59	.76
친숙한 추상적 숙달	비동거	3.68	.65
	동 거	3.74	.51
친숙하지 않은 구체적 숙달	비동거	2.84	1.09
	동 거	2.89	1.05
친숙하지 않은 추상적 숙달	비동거	2.49	1.01
	동 거	2.56	1.00



〈그림 4〉 친숙하지 않은 구체적 숙달이해능력에서의 학년*조부모동거 상호작용 효과

모와 동거경험이 없는 아동들의 경우 친숙하지 않은 구체적 숙달의 이해능력에서 4학년에 비해 6학년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조부모와 동거경험이 있는 4학년과 6학년 아동의 점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4).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구체적 조작기 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비유언어에 대한 이해 능력과 사용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전주시의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아동 529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속담이해능력과 사용정도를 조사하였으며, 속담이해능력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속담의 특성 중 친숙도와 구체성, 아동의 특성 중 학년과 성별,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속담이해능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속담의 친숙성 정도와 속담이 포함하는 명사의 구체성에 따라 4가지로 속담의 유형을 분류하여 각 속담들에 대한 정답비율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대상 아동들은 친숙한 속담들에 대해서는 구체성/추상성 여부에 관계없이 비슷한 정답비율을 보인 반면, 친숙하지 않은 속담의 이해능력 점수는 속담의 구체성과 추상성 여부에 따라 다소 다른 정답비율을 보였다. 즉, 친숙하지 않은 속담의 경우, 속담에 포함된 명사가 구체명사일 때는 정답비율이 58-85%인 반면 추상명사만을 포함한 추상적 속담일 때는 43-70%의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친숙하지 않은 속담의 뜻을 추론할 때 아동들은 속담에 포함된 명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분석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 명사가 시각적 참조물이 뚜렷하지 않은 추상명사일 때보다는 구체명사일 때 정확한 추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Nippold와 Haq(1996)의 해석을 지지한다.

둘째, 속담이해능력 점수에서의 학년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4가지의 속담유형 모두에서 4학년보다 6학년의 속담이해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이러한 학년 간 차이가 대상 아동들의 연령에 따른 인지발달에서의 차이인지 혹은 교육적 경험에서 오는 차이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며, 다만 두 가지 가능성 모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6학년의 경우 4학년에 비

해 인지발달면에서 구체적 조작사고에서 형식적 조작사고로의 전환이 이미 이루어진 아동들을 포함할 확률이 높으며, 그러한 인지발달의 차이로 인해 속담이해능력에서 학년 간 차이가 나타났을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으로, 6학년은 4학년에 비해 교과과정에서 더 많은 수의 속담을 학습하며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속담에 노출되었을 기간이 더 길다는 점에서 속담이해능력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 중, 본 연구의 결과들은 연령에 따른 인지발달에서의 차이 가설을 더욱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친숙하지 않은 구체적 속담에서 학년 간 점수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결과는 이미 알고 있는 속담의 차이가 아닌 모르는 속담의 뜻을 '추론'하는 능력에서의 차이임을 의미할 것이다. 즉, 속담의 뜻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속담에 포함된 단어를 활용하는 인지능력의 발달면에서 4학년보다는 6학년이 앞서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인지발달에서의 차이에 대한 가능성을 지지하는 또 다른 결과로써, 본 연구에서는 속담사용정도에서 학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속담의 뜻을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실제 사용하는 것이 전혀 다를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학년 간 차이가 실제 속담의 사용과 같은 경험적 차이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을 다소 약화시킨다고 하겠다.

셋째, 속담의 두 가지 특성인 친숙도와 구체성의 기준에 따라 속담이해능력 전체점수를 비교한 결과 아동들은 친숙한 속담일수록, 그리고 구체적 속담일수록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 외국 연구들(Nippold, 1988, 1998; Nippold, et al., 1997; Nippold, et al., 2000; Nippold & Haq, 1996)의 결과와 일관된다. 특히 4학년과 6학년 아동 모두 친숙한 속담에 대해서는 3점 이

상(4점 만점)의 이해능력 점수를 보임으로써 속담의 뜻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속담의 친숙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앞서 첫 번째 분석에서 아동들이 친숙한 속담들에 대해서는 구체성/추상성 여부에 관계없이 비슷한 정답비율을 보인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속담이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양한 속담에 노출될 수 있도록 속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일차적 방법이라 제안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동의 학년, 성별, 일상경험 등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속담을 이해하는 정도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 전체적인 속담이해능력 점수에서 아동의 학년과 성별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속담이해능력이 학년에 의한 차이와 함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며 그 결과의 방향이 남아보다는 여아에게서 더 우수하게 나타남으로써 언어능력에서의 성차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Hedges & Nowell, 1995; Hyde & Linn, 1986; Rosenthal & Rubin, 1982)의 결과를 지지한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년 간 차이와 성별 간 차이의 두 효과가 상호작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6학년 여아의 경우 속담이해능력 점수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는 특히 친숙하지 않은 구체적 속담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알고 있는 속담지식에서의 성차와 학년차가 아닌 친숙하지 않은 속담의 뜻을 ‘추론’하는 과정에서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4학년에 비해 6학년이, 그리고 남아에 비해 여아가 이러한 추론적인 사고에서 앞서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비록 전체 속담이해능력점수의 선형조합에

서 학년과 조부모 동거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단변량분석 결과, 친숙하지 않은 구체적 속담 이해능력에서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본 결과는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친숙하지 않은 속담의 이해능력과 관계가 있으며, 특별히 더 어린 아동들의 속담이해능력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할 때, 속담이해능력은 아동의 연령(학년)과 성별 등 생물학적 요인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속담노출 경험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속담이해능력은 속담의 특성인 친숙도와 구체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개별 아동들이 각 속담에 대해 얼마만큼 친숙한가 하는 것이 그들의 속담이해능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본 연구결과의 해석 시, 연구자는 속담이해능력에서의 학년 간 차이가 그들의 인지발달 수준에서의 차이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결과에 대한 해석이 아닌 하나의 가능성임을 밝히고자 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속담이해능력의 학년차를 전체점수가 아닌 속담유형별 점수로 비교하였을 때, 친숙하지 않은 추상적 속담에서 학년 간 점수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6학년 아동의 인지수준이 4학년과 질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해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인지능력을 가진 반면, 아동기 후기와 청소년기부터 나타나는 형식적 조작사고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

해서도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6학년 아동의 인지능력이 4학년과 질적으로 다르기 위해서는 친숙하지 않은 추상적 속담의 이해능력 점수가 6학년 아동에게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가설을 경험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본 연구는 속담이해능력에서 4학년과 6학년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기는 하나,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속담이해능력에서의 차이를 연구함으로써 연령별 차이의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속담이해능력에서의 차이가 인지능력에서의 차이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 아동의 인지발달수준을 직접 조사하여 각 아동의 속담이해능력과 비교하는 후속연구를 수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들 두 변인 간에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속담노출 경험과 같은 영향요인 등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그 관계가 유의한지 등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속담이해능력을 바탕으로 아동의 인지발달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혹은 촉진하는 등의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으로, 속담이해능력 측정에서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속담이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유형별로 총 16개의 속담에 대해 각각 정답 1개와 오답 1개로 구성된 정답지 중 답을 선택하도록 하는 비교적 단순하고 측정이 용이한 질문지를 개발하

여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는 속담의 뜻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데 그 타당성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며, 측정에 있어서도 2지택 일형의 응답지가 갖는 정답우연확률 50%의 제한점을 감안하여 무응답과 오답을 분리하여 측정함으로써 응답의 정확성을 높이려 하였다. 그러나 보다 복잡한 다수의 오답지로 측정하는 것과 비교할 때 신뢰성에서 다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다수의 오답지를 포함하여 측정한다면 응답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연령에 따른 인지발달에서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속담을 질문할 때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사용한 속담의 뜻을 묻는다면 속담의 뜻을 추론하는 데에 문맥적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오소정, 2001; Nippold et al., 1988), 문화와 상황을 반영하는 보다 정확한 이해능력을 구분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16개보다 더 많은 수의 속담을 가지고 각 속담이 실제 사용되는 대화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상황제시와 함께 다수의 정답지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한다면, 본 연구를 보다 확장시켜 아동의 속담이해능력과 인지발달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대다수의 속담연구와는 달리 심리적·발달적 측면에서 속담연구에 접근함으로써, 아동발달 차원에서의 속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화된 속담연구가 진행된다면, 인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장애아동의 인지교육 및 치료프로그램에 속담을 활용하고 있는 기존 외국연구들과 같이 일반 아동의 인지발달수준을 진단하고 향상시키는 도구나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명희(1989). 속담을 통해서 본 성차별. 경북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연수(1993). 부모-조부모 관계와 손자녀-조부모 친밀도가 청소년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사실인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종택(1994). 속담의 기능과 구조. **새국어 생활**, 4(2), 27-45.

김충효(1983). 한국 속담의 의미소 연구. **부산대 논문집** 5, 35-51.

김현주(2006). 조부모와의 유대감이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박갑수(2001). 속담에 반영된 딸과 며느리 : 한·일·영어의 발상과 표현. **한글한자문화**, 20, 53-55.

서동인(1996a). 10대 자녀를 둔 모가 기대하는 조부모 역할과 손자녀역할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따른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357-371.

서동인(1996b). 친조부모-손자녀관계에 대한 모의 관점 및 중재에 관한 연구 : 10대 자녀를 둔 모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2), 153-166.

서정수(1982). 은유적 표현의 이해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오소정(2001). 속담 이해능력의 발달 : 학령기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유재복(2001). 우리말 대칭속담의 의미생성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45, 453-470.

이미숙 · 조병은 · 강란혜(2004). 학동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수행 : 취업모가족과 비취업모가족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2(4), 69-84.

이하배(2001). 우리 속담에 나타난 성차별의 사회화 : 유교적 사회화와의 관련 속에서. **한독사회과학논총**, 11, 185-207.

정달영(1998). 한·일 속담의 비교연구. **비교한국학**, 4, 60-106.

(2000). 한·영 속담의 비교연구. **비교한국학**, 6, 147-168.

조복희 · 이주연 · 강기숙(2007). 초등학교 아동의 속담인지수준과 인지속담의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5(4), 77-86.

조복희 · 안선희 · 이영환 · 이진숙(1998). 한국 부모-자녀관계 속담에 대한 동의도와 가족환경 및 가족가치관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8), 105-123.

조복희 · 이진숙(1998). 우리나라 부모-자녀관계 속담의 특성과 인식분석. **아동학회지**, 19(1), 5-25.

조재운(1988). 한국속담의 구조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진경지(2002). 한·중 속담의 변용과 외전. **한국언어문학**, 21, 295-310.

최창렬(2002). **우리 속담 연구**. 서울 : 일지사.

Abrahamsen, E. P., & Sprouse, P. T. (1995). Comprehension by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5, 302-308.

Billow, R. M. (1975). A cognitive developmental study of metaphor comprehen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415-423.

Ezell, H. K. (1998). A survey of educators and speech-language pathologists regarding figurative language instruction. *Journal of Children's Communication Development*, 18, 39-48.

Feingold, A. (1988). Cognitive gender differences are disappearing. *American Psychologist*, 43, 95-103.

Gibbs, R. W. (1991). Semantic analysability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idiom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4, 613-620.

Gorham, D. R. (1956). A proverbs test for clinical and experimental use. *Psychological Reports*, 2, 1-12.

Hedges, L. V., & Nowell, A. (1995). Sex differences in mental test scores, variability, and numbers of high scoring individuals. *Science*, 269, 41-45.

Hyde, J. S., & Linn, M. C. (1986). *The psychology of*

- gender : *Advances through meta-analysis*(pp. 1-13).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Kornhaber, A., & Woodward, K. J. (1981).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 The vital connection*. Garden City, NY : Anchor Press.
- Lazar, T., Warr-Leeper, G. A., Nicholson, C. B., & Johnson, S. (1989). Elementary school teachers' use of multiple meaning expression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20*, 420-429.
- Mieder, W., & Holmes, D. (2000). *Children and proverbs speak the truth : Teaching proverbial wisdom to fourth graders*. Burlington, VT : University of Vermont Press.
- Nippold, M. A. (1988). Figurative language. In M. A. Nippold (Ed.), *Later language development : Ages nine through nineteen* (pp.179-210). Austin, TX : Pro-Ed.
- Nippold, M. A. (1998). *Later language development : The school-age and adolescent years*(2nd Ed.). Austin, TX : Pro-Ed.
- Nippold, M. A., & Haq, F. S. (1996). Proverb comprehension in youth : The role of concreteness and familiarity.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9*, 166-176.
- Nippold, M. A., Uhden, L. D., & Schwarz, I. E. (1997). Proverb explanation through the lifespan : A developmental study of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0*, 245-253.
- Nippold, M. A., Allen, M. M., & Kirsch, D. I. (2000). How adolescents comprehend unfamiliar proverbs : The role of top-down and bottom-up processe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3*, 621-630.
- Nippold, M. A., Martin, S. A., & Erskine, B. J. (1988). Proverb comprehension in context : A developmental study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1*, 19-28.
- Piaget, J. (1959). *The language and thought of the child*(3rd Ed.). London, UK : Routledge & Kegan Paul.
- Pinto, M. A. (1999). *Metalinguistic awareness : Theory, development, & measurement instruments*. Italy : Istituti Editoriali e Poligrafici Internazionali.
- Power, R., Taylor, C. L., & Nippold, M. A. (2001). Comprehending literally-true versus literally-false proverbs. *Child Language Teaching and Therapy, 1-18*.
- Richardson, C., & Church, J. (1959). A developmental analysis of proverb interpretation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94*, 169-179.
- Rosenthal, R., & Rubin, D. B. (1982). A simple, general purpose display of magnitude of experimental effec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 166-169.
- Ruble, D. N., & Martin, C. L. (1998). Gender development. In N. Eisenberg(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5th ed., vol. 3)(pp.933-1016). NY : John Wiley & Sons.

2007년 4월 30일 투고 : 2007년 9월 17일 채택